는 원장 스님이 대변을 보는 것도 고도의 상징이냐고 물었다. 나로서는 먹고 마시 고 배설하는, 나와 똑같은 신체적 매커니

즘을 가진 인간이 부처에 가까운 존재가 된다는 게 믿기지 않기 때문이다. 민희는 내 질문에서 조롱을 읽지 않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응. 그건 이 세계의 모든 것이 다시 흙으로 돌아 간다는 상징이야."

나는 민희의 말을 대놓고 반박하진 않았다. 췌장 암은 치사율이 높았다.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 나 되냐고 묻자 민희는 이렇게 말했다.

"퍼센트는 중요하지 않아. 세상에는 말도 안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일반인들은 그런 일을 기적이 라고 불러."

그 말은 민희가 살 확률이 기적에 가깝다는 소리 로 들렸다. 나는 분했다. 쉰 살은 죽음을 생각하기 엔 지나치게 젊었다. 먼저 늙음을 겪어야 했다. 늙 음은 날카로운 회칼로 아주 얇게 저며진 죽음이어 서, 우리는 늙음을 한 점 한 점 음미하는 법부터 배 워야 하는 거 아닌가.

"횟집 일이 많이 힘들었니?"

민희는 내 걱정을 했다. 민희와 나는 밤마다 많은 얘기를 나눴다. 우리의 대화는 불을 끄고 나서 내밀 한 어둠 속에서 이루어졌다. 민희의 말에는 허영기 가 없었다. 허영은 너무나 삶을 향하고 있는데, 민 희는 그 반대 방향을 보고 있었으니까. 나 역시 민 희에게 많은 것을 솔직하게 말했다.

"즐겁진 않았어. 종업원들 셋이 자기들끼리 싸웠 는데, 어느 틈에 내가 백안시되더라. 나중에 날 보 고 인사도 하지 않았어. 뭐 서빙 일이야 다시 구하 면 그만이니까."

민희는 원장 스님이 한 말을 들려줬다.

"사람은 피부를 경계로 밖과 구분되고 자신의 본 질은 내부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틀린 생각이 래. 사람의 본질은 사람 바깥에 있어서, 누굴 만나 고 어떻게 관계 맺느냐가 전부래. 그래서 다른 사람 을 사랑으로 대하면 사랑이 본질이 되고, 자주 사람 을 미워하면 미움이 본질이 된대."

만약 민희가 내게 횟집 종업원들을 미워하냐고 물 었다면 나는 발끈했을 것이다. 그러나 민희는 그렇 게 묻지 않고 어둠 속에서 내 손을 잡았다. 민희의 손가락은 너무 차갑고 가느다래서 나는 사람이 살이 빠지면 손도 작아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

어느 밤에 나는 시진의 등단에 대해, 아무리 나이 를 먹어도 익숙해지지 않는 실연에 대해, 내가 죽을 때까지 작가가 되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에 대해 말했다.

"내가 작가가 되고 싶은 마음 중에는 횟집의 다른 종업원들보다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게 아닐까."

민희는 모두 괜찮다고 말해줬다. 누군가에게 나 의 가장 깊은 곳에 고여 있는 어둠을 말할 수 있다 는 것, 그 사람이 나의 말을 판단하지 않고 오로지 빛을 비추어 줄 뿐이라는 것은 작은 구원이었다. 보 일러 비를 아끼느라 선원의 공기는 싸늘했지만, 나 중에 이 순간을 떠올리면 민희와 나를 잇는 어둠이 푹신푹신하고 따뜻했다고 기억하리라.

"나는 혼자만의 구덩이를 너무 깊게 파고 들어간

것 같아. 다시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 나는 구덩이에 대해서도 말했다.

"다른 사람의 구덩이와 연결될 수는 없어?"

민희가 물었다.

"응." "왜?"

"수직으로만 파고드는 구덩이거든."

"더 내려가면 아주 큰 동굴과 이어질 거야." 민희가 말했다.

"거기서 사람들이 잔치를 열고 있을 거야. 전도 부치고 막걸리도 마시고…동굴 한가운데에선 모닥 불이 활활 타오르고, 춤을 추는 사람이랑 악기를 연 주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나는 그 이미지가 마음에 들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영원한 고립이 두려워서인데, 망 자들이 무덤 깊숙한 곳에 모여 잔치를 벌인다면 얼 마나 좋을까. 나는 그날 푹 잘 수 있었다.

이 유난히 밝은 밤, 민희가 자신이 살아온 얘기를 들려준 적이 있다. 그 중엔 내가

아는 얘기도 있었지만 모르는 얘기도 있 었다. 우리는 어릴 때 친구였지만 어른이 되고선 연 락이 끊겼다. 다시 만난 건 내가 서른여덟일 때 돌 아가신 내 외할머니의 장례식장에서였다. 누군가 의 어린 시절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잘 안다는 착각을 심어주기 때문에 민희와 나는 금방 다시 친 해졌다. 민희는 고교 시절 성적이 매우 좋았지만 대 학에 갈 형편이 못되어서 생명마을에서 운영하는 공장에 취직했다. 그 공장에서 기계에 몸을 끼어 청 년이 사망한 사건이 한때 뉴스에서 떠들썩했는데, 그 청년은 민희의 애인이었다. 민희는 공장을 그만 두고 교단을 떠났다. 처음 사귄 남자여서 충격이 컸 다고 민희가 말했다.

"그렇게 죽은 건 참 가엽지만 사실은 좋아하지 않 았어. 공장에 젊은 남자가 몇 명 없었거든. 젊다고 해도 나보다 여덟 살이나 많았지만. 내가 고아였잖 아. 새엄마는 워낙 엄했고. 그냥 누구라도 괜찮았던 거 같아, 날 좋아하는 사람이면."

"넌 예뻐서 인기가 많았을 텐데."

"교단을 나가서 또 공장에서 일했는데, 공장장이 나보다 열다섯 살 많고 부인이 병에 걸려 죽은 남자 였어. 그 사람이 나와 결혼하고 싶다고 했어. 내가 거절할 이유가 없지. 부자인데다 아이도 없지 참 편 하잖아. 그런데 시어머니랑 안좋았어. 가방끈이 짧 고 이상한 종교집단에서 자랐다고 날 무시했어. 그 리고 남편과의 섹스도 참기 힘들었고."

"섹스?"

나는 물었다. 남편과 만난 경위나 시어머니와의 불화는 언뜻 알고 있었지만 남편과의 성관계를 참 기 힘들었다는 말은 처음 들었다.

"응. 하면 안되는 일을 하는 것 같았어. 마치 개나 소 같은 짐승이랑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걸 하는 중에 딴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되더라."

민희는 계속 말했다. "어쩌면 수현이가 그걸 안 게 아닐까. 자신이 만들 어질 때 내가 그렇게, 수치심에 떨었다는 걸… 그래 서 세상을 향해 고집스럽게 눈을 돌리는 게 아닐까."

"그렇지 않아, 민희야." "은경아, 나는 세상이 너무 추웠다. 그래서 조금 만 따뜻한 공기가 느껴지면, 그 한 줄기 따스함에 목숨을 걸고 매달렸다. 삶이 나한테는 생존의 문제 였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산책 같은 거겠지. 세상이 따뜻하고 훈훈한 봄날인 사람이라면 여기저기 천천 히 걷다가 고르고 골라 자신의 보금자리를 정했겠 지. 나는 그럴 여유가 없었어. 얼어 죽을까봐 무서 웠으니까. 그런데 요즘은 내가 너무 성급했던 걸 까, 중요한 결정을 아무것도 모르는 시기에 내렸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바람이 불어서 창문이 덜커덩거렸다. 나는 이불 속으로 민희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바람이 그치자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다 준비되고 아이를 갖는 사람이 어딨니. 지금 생각하면 이십대 삼십대가 참 어린데 그 나이에 어 떻게 부모가 되나 싶어. 오십이 되니까 아이가 있으 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제야 드는데."

"…아이가 갖고 싶니?"

민희는 졸린 목소리로 물었다.

"그냥 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보는 거야. 나이를 먹 어서 그런가. 서른, 마흔이 되었을 때도 내가 벌써 이 나이인가, 하고 씁쓸했는데 쉰은 또 다르네. 한밤중에 자다가 깼을 때처럼 퍼뜩 놀라. 내가 벌써 쉰이구나. 젊은 날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살아 있는 것들이 좋아지네. 아이는 생명 자체잖아."

"아니… 빚이… 동굴 속을 환하게…"

민희는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고는 잠들었다. 나는 어둠 속의 한 점을 오래 바라보았다. 어디에도 빛은 없었다. 깊은 우울감이 나를 덮쳤다. 만약 아 이가 있었으면 작가가 되지 못한 것이 덜 불행했을 까. 연인이 있었다면 남은 나날들이 덜 두려웠을 까. 망망대해를 헤엄치는 것처럼 살았다. 정신을 차 리고 보니 주변에 떠다니는 건 펼쳐진 책들과 원고 의 낱장들 뿐. 주변 풍경은 변한 게 없는데 나는 이 렇게 나이 들어 버렸다는, 남은 미래는 죽음뿐이라

서 반걸음쯤

떨어진것같

습니다. 그

반걸음이 저

로하여금소

슬픔은 기

는 섬뜩한 깨달음.

가 떠나기 일주일 전, 민희는 오리 백숙을 사주겠다고 했다. 원장 스님이 유일하게 허락한 외식이 오리 백숙이라고, 선원에

서 걸어서 오 분이면 조미료를 쓰지 않고 반찬이 정 갈한 오리집이 있다고 했다. 비구니 스님 셋도 함께 갔다. 오리집은 일층자리 평범한 단독주택을 식당 으로 사용하는 곳이었고, 밖에는 누런 진돗개가 묶 여 있었는데 짖지도 않았다. 그놈 오리고기를 많이 먹어서인지 털이 반들반들하네, 라고 한 스님이 말 했다. 주인 여자는 얼굴빛이 어둡고 통통한 육십 대 중반 정도의 여자였는데, 친구로 보이는 여자 한 명 과 함께 손님용 테이블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었다. 테이블은 다섯 개였고 다른 손님은 아무도 없었다.

선원에 있는 동안 간이 안 된 음식만 먹어서인지 황귀와 당귀 같은 한약재를 듬뿍 넣은 오리 백숙이 유난히 맛있게 느껴졌다. 오리의 살을 다 먹고 남은 국물에 죽을 끓여서 떠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앉 아 소주를 마시던 주인 여자가 "제가요, 좀 울어도 될까요?"하고 우리에게 말을 걸었다. "그만해. 손 님도 있는데." 친구로 보이는 여자가 제지했는데 도, 그녀는 흐느끼며 말을 이었다.

"삼 년 전 이맘때, 내 아들이 떠났어요. 군대에서 스스로…목을 매고."

이쪽 테이블에서 저런, 쯧쯧, 같은 소리가 나왔 다. 나는 여러 감정을 느꼈는데 그 중에는 미세한 반감도 있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저런 얘 기를 하다니. 밥 먹고 있는데. 난 슬그머니 숟가락 을 놓았다.

"잊을 수가 없어. 여기가 아파. 너무 아파."

주인 여자는 주먹을 쥐고는 가슴을 쾅쾅 두드렸 다. 그녀의 눈동자는 취기와 슬픔으로 붉었다. 나는 휴대전화로 카톡을 보았다. 내게 온 메시지는 하나 도 없었다. 포탈 뉴스를 클릭했다. 빙하가 녹아 북 극곰의 수가 줄어들었다는 뉴스였다. 나는 눈 앞에 펼쳐지는 뜨끈하고 축축한 아픔에서 눈을 돌리고 아주 먼 곳에서 일어나는 익히 알려진 비극을 들여 다보았다.

"…어떻게 그런 일이."

물기어린 목소리에 옆을 보니 민희가 울면서 콧물 을 줄줄 흘리고 있었다. 스님 중 한 명이 휴지를 뽑아 건넸다. 나는 민희의 눈물이 자신의 불행에서 비롯 된 게 아닐까 잠시 의심했지만, 여사장의 얼굴빛이 밝아지고 눈가와 입매가 한결 부드러워진 걸 보고 아 주 깊고 넓은 지하 동굴에서 잔치를 벌이는 사람들을 떠올렸다. 그 사람들을 울고 있을까, 웃고 있을까.

"내 정신 봐. 노지 감귤이, 제주도에서 친척이 보 낸 맛있는 귤이 있는데."

주인 여자가 허겁지겁 부엌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귤 여섯 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주인 여자와 민희는 눈물을 머금은 눈으로 말없이 서로를 마주

식당을 떠나며 민희는 주인 여자를 안았다. 민희 가 내 손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엉겁결에 나도 주인 여자를 안는 모양새가 되었다. 주인 여자는 우리를 꽉 끌어안았다. 그건 이상한 기분이었다. 두툼하게 살집이 잡힌 몸과 뼈밖에 남지 않은 몸, 그리고 평 범한 체구의 몸. 그 중 어느 것이 내 몸인지 잠시 구 분이 가지 않았다. 나는 조금 울었는데 그 눈물도 내 것이 아니었던 것 같다.

문 시간에 나는 통유리 너머로 당산나무 를 지켜보았다. 검고 거대한 당산나무는

모든 나무들이 그렇듯 자신이 아닌 밖을 향해 나뭇가지를 내밀고 있었다. 창 밖으로 눈이 내 렸고, 마치 손바닥 위에 놓인 선물처럼 나뭇가지에 눈이 쌓였다. 그 풍경을 오래 보는 동안 내 안에도 뭔가가 두텁게 쌓이는 것 같았다. 부드럽고 연약하 지만 내부의 풍경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무언가가.

원장 스님은 정확한 발음으로 그렇게 말했다. 그 리고 내 쪽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

"인생에 실패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손해는 없 다. 인생의 모든 일은 결국은 득이다. 실패도 득이 다. 당신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나도 모르게 "네."라고 대답했다. 그날 저녁 그는 '폐관 수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민희의 말에 따 르면 원장 스님은 일 년에 한 번, 석 달 동안 판자로 창문을 막은 어두운 방에 틀어박혀 수행을 하는데, 이 기간 동안 그가 주변의 고통을 빨아들이므로 환 자들의 병세가 좋아진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그러면 원장 스님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 스 님 안에 쌓이면 어떡하는데?"

"스님의 마음 깊은 곳에는 불꽃이 있어. 고통을 태워서 더 큰 빛을 만들어."

"항암치료는 안받을 거니?"

나는 내 말이 염려나 의심으로 들리지 않게 조심 스럽게 물었다. 의사는 낮은 확률이라도 항암치료 를 해보자고 설득했지만, 민희는 치료를 거부했다. 민희는 볼살이 말라서 기이하게 커 보이는 눈으로 날 쳐다보며 딴소리를 했다.

"은경이 넌 늘 용감했어. 자기 마음을 따라 살았 잖아. 그게 멋있고 부러웠어. 계속 그렇게 살아."

나중에 나는 이 말을 민희의 작별 인사로 기억하 겠지만, 당시에는 몰랐다.

선원을 떠나기 전 날 밤, 나는 잠든 민희의 숨소 리를 들으며 시진과 처음 만난 날을 떠올렸다. 그러 니까 모니터 속이 아니라 실제 세상에서 만난 날. 일본식 꼬치구이 집이었는데 시진은 조명이 너무 어두워서 음식도 보이지 않는다고 투덜거렸지만, 나는 내 부끄러움과 눈가의 주름을 가려줄 짙은 어 둠이 고마웠다. 구운 파와 소금구이 닭꼬치가 번갈 아 끼워진 꼬치를 뜯어 먹고 초록색 병에 든 맑고 달콤한 사케를 마시며 나는 말했다.

"나는 책벌레였어요. 어렸을 때는 심지어 책 속 세 계가 진짜고, 현실 세계는 가짜인 줄 알았어요. 책 속 세계는 넓고 흥미진진했지만 현실 세계는 좁고 암울했거든요. 내 아버지는 알콜 중독에 폭력적인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폐쇄병원에 입원했어요."

어느 맥락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나. 어쩌다 글을 쓰게 되었냐는 질문을 시진이 던졌던 것 같다. 나는 좀 더 흥미로운 사람으로, 글쓰기가 운명인 사람으 로 보이고 싶었다. 그리고 물기 어리지 않은 건조한 목소리로 불행을 말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으로도. 가짜 세계에서 어떻게 살았냐고 시진이 물었다.

"집에선 방에 틀어박혀 책만 읽고 학교 수업시간 엔 잠만 잤어요. 밤새 아빠가 소리를 질러대서 잠을 못자기도 했고. 〈로빈슨 크루소〉라는 책을 학교에 갖고 다녔어요. 쉬는 시간에는 책을 펼치고 내가 무 인도에 있다고 상상했어요. 32페이지에 로빈슨 크루 소가 개와 해변에 앉아 지는 해를 바라보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게 내가 생각하는 천국과 가장 흡사 했어요. 사람이 없고 개 한 마리뿐인 섬이 말이죠."

이날 시진은 검은 코트 밑으로 갈색 가죽 치마와 검은 터틀넥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시진의 긴 목을 완전히 가리면서도 몸의 실루엣을 그대로 드러내는 웃옷을 나는 힐끗거리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시진 은 내 쪽으로 몸을 숙이고 사케를 잔뜩 마셔서 느슨 해진 목소리로 물었다.

"언제 깨달았어요? 책속 세계가 가짜고, 바깥 세 계가 진짜라는 걸?"

"얘기가 길어져도 괜찮아요?"

나는 되묻었고 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우 리는 카드놀이를 하듯 각자의 가장 내밀한 상처와 깊숙한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상대의 패를 읽는 중 이었다. 시진이 내게 먼저 고등학교 1학년 말에 단 짝 친구가 교통사고로 죽은 얘기를 했다. 그 후로 시진은 고교시절 동안 친구를 만들지 않았다고, 그 래서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남는 시간을 떼우 기 위해 소설을 읽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 친구를 정말 아꼈나 봐요, 라고 내가 말하자 시진은 꼭 그 런 건 아니었다고 대답했다. "그냥 그 애가 죽었다 고 다른 아이로 대체하는 게 불결하게 느껴졌어 요."라고 시진은 말했다. 그 말에서 시진의 고결함 에 가까운 결벽증이 느껴졌고, 나는 좀 더 시진에게 반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를 매혹하는 중이었 고 둘 다 그걸 알았다. 그래서 더 빨리 취했다.

"어릴 때 나는 여름방학마다 엄마를 따라 외할머

니 댁에 갔어요. 외할머니는 사이비 종교를 믿는 마

나는 생명마을에 대해 상세하게 묘사했다. 외진 곳으로 이십 분을 달리면 나타나는 검문소. 야자수 가 곳곳에 세워지고 잔디가 깔린 정원. 언덕 위에 세워진, 외벽 페인트가 벗겨진 낡고 음습한 아파 트. 아파트에서 걸어서 삼십분 거리에 있는, 하얀 천사 조각상들이 안팎으로 놓여 있는, 그곳에서 '성 전'으로 불리던 교회. 천국과 지옥을 섞은 것 같은 생명마을의 분위기가 이야기에서 중요했다. 그곳 사람들은 기분 나쁠 정도로 선량했고, 그 선량함은 맹목으로 이어졌다. 아파트는 삼층이었는데 층마 다 오십여 가구가 살았고, 복도 끝에 세 개의 변기 가 있는 공동화장실이 있었다. 집에는 개인 화장실 이 없었지만 부엌에 타일이 붙은 바닥과 수챗구멍 이 있어서 소변은 거기서 봤다. 그리고 물통에서 바 가지로 물을 퍼서 쏟아 부었다. 그래서 어느 집에 가든 공기 중에 희미한 암모니아 냄새가 떠돌았다. 아파트에는 작은 매점도 하나 딸려 있어서 민희와 나는 스크류바와 쌍쌍바 따위를 사먹었다. 매점 아 줌마는 손님들에게 신경도 쓰지 않고 늘 교주님이 나오는 비디오를 시청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우리는 사케 한 병과 홍합이 가득 든 맑은 오뎅탕을 더 시켰다. 그 이야기에서 의도한 것은 내가 어린 시절부터 이토록 다양한 세 계를 이동하며 살아왔다는, 그래서 성인인 내가 독 창적이면서도 유연한 시야를 갖게 되었다는 암시였 다. 나를 보는 시진의 가늘고 촉촉한 눈에서 내 시 도가 성공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곳엔 주근깨가 잔뜩 나 있고 머리카락이 갈색 인 예쁘장한 여자애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애 이름이 민희였는데, 민희는 철사처럼 뻣뻣 한 검은 머리에 심술궂게 생긴 그 애 엄마랑은 너무 달랐죠. 생명마을에 내 또래는 그 아이밖에 없고, 게다가 동갑이라서 우리는 금방 친해졌어요…"

집마다 벽장이 있었는데 민희와 나는 벽장에 들어 가는 놀이를 했다. 문을 옆으로 밀어서 여는 벽장이 었고 안에는 이불이 개어져 있었다. 이불냄새와 나 프탈렌 냄새가 났고, 벽장 틈으로 새어나오는 뾰족 한 빛을 받은 먼지들이 아롱거렸다. 그곳에서 우리 가 무슨 대화를 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았다.

"왜 그런 놀이를 했어요?"

시진이 물었다.

"그 애가 예뻐서 어둠 속에서 둘이만 있고 싶었어 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둘 다 육학년이었을 때, 민희의 집 벽장에 숨어 있는데 두 아주머니가 민희의 엄마를 찾아 왔어요. 생명 마을에선 아무도 문을 잠그고 다니지 않거든요. 두 아주머니는 잠깐 얘기를 나누다 떠났어요."

집에 없나? 없나 봐. 이 집 딸은 고아원에서 데려 온 애라며? 애기 때 데려왔지, 세 살 인가. 그러면 친엄마가 아닌 걸 모르겠네? 모르지, 자기가 고아 란 걸. 두 아주머니가 떠난 후 민희와 내가 얼마나 오래 벽장에서 숨죽이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일 이 분처럼 짧은 시간 같기도 하고 삼십 분이 넘는 긴 시간 같기도 하다. 내가 왜 벽장 속에서 민희의 뺨과 입술에 입을 맞췄는지도 모르겠다. 모든 것이 지난 지금 나는 추측할 뿐이다. 고아라는, 아이가 상상할 수 있는 최대한의 비극에 매료된 것일까. 아 니면 그 혼란의 틈을 타서 평소에 염원했던 일을 실 행한 것일까.

"내가 아직도 헷갈리는 것은, 스크류바 딸기 맛이 나는 민희의 입술에 내 입술을 포갠 순간인지, 아니 면 어둠에 익숙해진 눈이 갑자기 벽장 밖의 환한 세 상에 노출되었을 때인지, 아니면 벽장 밖에 나온 민 희가 날 향해 웃으며 놀이터에 가자, 라고 말했을 때인지. 그러니까, 책 속 세계가 가짜고 현실이 진 짜라는 걸 깨달은 순간이요."

"잃어버린 책의 세계를 위해 건배해요."

시진이 나뭇가지에 달린 분홍 벚꽃이 그려진 사 케 잔을 내밀며 말했다. 나도 잔을 든 손을 뻗었다. 막 시작하려고 하는 이 관계가 언젠가 시들 것이라 는 걸 상상도 못한 채로.

이 이야기가 왜 글을 쓰냐는 질문의 대답이라는 걸 아직 깨닫지 못한 채로. 〈끝〉

단편소설 당선 소감

"스스로에게서 떨어진 반걸음이 소설 쓰게 만들어"

어릴 때 현실 세계가 가짜이고 책 속 세상이 진짜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일학년 교실에서 누가 인사 를 하고 말을 건네도 대꾸도 하지 않았 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소년소녀판 '로 빈슨 크루소'를 펼치고 무인도로 들어 갔습니다.

언제였을까요. 현실 세계가 진짜라 고 자각한 순간은. 그건 한순간에 번쩍 깨달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책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와 현실 속 저의 육체로 도착하는 길고 긴 여행이 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행에서 저는 정말 잘 도 착한 걸까요. 저는 아직도 스스로에게



설을쓰게만 듭니다.

쁨이되고기 쁨은 슬픔이 되니, 저는

반걸음 떨어진 곳에서 삶이 주는 슬픔 과 기쁨을 바라보고 쓰겠습니다.

사랑하는 엄창석 선생님에게 오래 소설을 배웠습니다. 온라인으로 만난 김이설, 김성중 선생님께도 감사드립

'작은 이야기 마을' 식구들이 있어 늘 든든합니다. 마음의 고향이 되어주 는 '유심선원' 식구들에게도 감사합 니다.

아무 대가 없이 삼 년 동안 심리 상담 을 해주신 고려대 박정배 선생님에게 특별한 감사를 전합니다.

소중한 친구들. 지인들. 스님들. 어 머니. 모두 고맙습니다.

▲84년생 ▲제주 거주

단편소설 심사평

"사랑과 예술, 생과 사에 대한 묵직한 물음 돋보여"

근원적인 주

제를 소설에

서 탐구할 때

에는 반드시

더 깊고 심층

적인 성찰이

수반되어야

한다는점 등

이아쉬움으

로 남았다.

본심에서 마지막까지 집중적으로 살 펴본 작품은 '우리가 원소로 순환될 때'와 '벽장 밖은 어디로' 두 편이다.

이 두 편의 작품은 공교롭게도 모두 예술과 죽음 앞의 삶이라는 다층적 문 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서사 로 구현하는 방식은 사뭇 다르다. '우 리가 원소로 순환될 때'는 그로테스크 하고 다소 섬뜩하게 여겨지는 극적 설 정이 눈길을 끌었다. 무엇보다 계속 글 을 읽게 만드는 독특한 흡인력과 에너지 가 느껴지는 작품이었다. 하고 싶은 이야 기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패기와 열정은 주목할 만했으나 전체적으로 서사의 흐름 이 장황하고 매끄럽지 못한 점, 또 이런



정이현 소설가

'벽장 밖 은 어디로'는 사랑에도 꿈을 이루는 일 에도 성공하지 못한 중년의 여성 화자 가, 암환자인 어릴 적 친구를 찾아가는 이야기이다.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문장

과 잔잔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전개가 인 상적이었으며,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사 랑과 예술, 생과 사에 대한 묵직한 물음 을 독자의 가슴에 던지는 역량이 돋보였 다. 당선작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왜 글을 쓰느냐는 질문의 대답'이라는 문장 은 '왜 삶을 살아가느냐는 질문의 대답' 이라고 바꿔 읽을 수 있다. 이것이 이 소 설이 가진 힘일 것이다. 이에 큰 망설임 없이 당선작으로 결정하게 되었다.

▲현대문학상, 이효석 문학상 등 수상 ▲'낭만적 사랑과 사회', '달콤한 나의 도시' 등 다수